

‘위도띠뱃놀이’ 세계에 알린다

부안군, 27일 독일 베를린서 창작무용극 ‘고섬섬’ 개최… 전통 해양의례, 현대적 무대예술 재해석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과 공동주최로 독일 베를린 슈타츠오페라 국립오페라극장(Staatsoper Berlin)에서 창작무용극 ‘고섬섬’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창작무용극 ‘고섬섬’은 부안군 위도에서 전승돼 온 전통 해양의례 ‘위도띠뱃놀이’를 현대적인 무대예술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부안 위도의 자연경관, 역사, 예술 그리고 어부들의 삶을 유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해 관객에게 풍성한 문화적 감동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가무형유산 제82-3호인 ‘위도띠뱃놀이’는 위도 어민들이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며 띠뱃을 바다에 띄우는 의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신앙과 삶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이다.

이번 공연은 부안의 전통문화가 세계적인 공연예술의 중심지에서 조명받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연이 열리는 베를린 슈타츠오페라 국립오페라극장은 1742년 설립된 유서 깊은 공연장으로, 유럽 공연예술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 중 하나다.

또한, 부안군은 이번 공연과 함께 극장 로비에 부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 10여 점을 전시해, 현지 관객들에게 부안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함께 소개하여 부안을 알리는 홍보



국가무형유산 제82-3호 ‘위도띠뱃놀이’

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공연은 부안 전통문화의 세계화는 물론, 지역 문화유산이 세계 예술의 중심 무대에서 인정받는 뜻깊은 자리”

라며, “앞으로도 부안군은 지역 고유문화의 보존과 세계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해문화관광재단 음악극 ‘당신이 좋아’ 전주한벽문화관서 공연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이 8월 1~2일 전주한벽문화관에서 김해문화관광재단의 음악극 ‘당신이 좋아’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전주브랜드공연 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대표 공연들이 서로의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며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앞서 2024년 11월에는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전주브랜드공연(마당창극) ‘오만방자 전라감사 갈들이기’가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음악극 ‘당신이 좋아’는 극장 사장 ‘정우성’이 영화 ‘러브스토리’를 보며 첫

사랑을 떠올리는 과정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삶의 이야기를 지닌 다양한 인물 군상이 펼쳐지는 작품이다. 총 5명의 배우가 출연해 다양한 감정과 서사를 섬세하게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진한 여운을 전달 예정이다.

이 공연은 남녀노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주크박스 뮤지컬 형식으로 구성, 유행가와 아련함이 공존하는 서사가 특히 중장년층 관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운영되며,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 예매는 전주티켓박스를 통해 가능하며, 공연 일정은 8월 1일 19:30, 2일 14:00 총 2회다.

/장은성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자원활동가 ‘소리천사’ 발대식 개최

성공 축제 위한 선서 · 결의 다져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 이하 소리축제)는 지난 23일 오후 2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2025 소

리축제 자원활동가 ‘소리천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선발된 80여 명의 ‘소리천사’는 소리축제가 원활하게 진행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축제를 돕는 자원활동가로, 축제를 성

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숨은 주역들이다.

이날 발대식은 김관영 도지사의 영상 메시지를 시작으로 김희선 집행위원장의 축사 및 소리천사 대표자 선서로 이어졌다. 이후 소리천사 전원은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축

제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누며 결의를 다졌다.

이어 실질적인 활동 준비를 위한 전체 교육과 팀별 오리엔테이션도 함께 진행됐다. 축제 프로그램, 티켓 운영, 공연장 위치 등 실무 중심의 공통 교육과 더불어 팀별 역할 이해를 돕는 세부 교육과 조장·부조장 선출, 활동 일정 공유 등이 이뤄졌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형태의 아이스브레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소리천사

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소리천사들은 오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119 안전체험관에서 재난 종합 체험과 응급 처치 등 전문 안전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 이후 본 축제 개막일 하루 전인 8월 12~17일까지 5일간 축제 현장 곳곳에 배치돼 관람객 안내, 공연장 운영 지원, SNS 홍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4)

총대를 메겠습니다.

- 오 상 근 -

미역을 국내로 반입하는 게 문제였는데, 정태가 생각한 방법은 기상천외하기 짝이 없었다.

‘얼բ한 조선족 한 놈 구워삶아서 그놈 뱃속에 물건을 채워가지고 오도록 하는 거야. 뽕을 만두만한 크기로 비닐로 밀봉해서 기름을 발라 배가 터질 때까지 삼키도록 하는 거지. 들어올 때 검사만 통과하면 끝이다 이거야. 어때냐?’

실소가 터지려는 걸 동식은 겨우 참았다. 어처구니없는 발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데서 사고가 터졌다.

‘배가 터질 때까지 삼킨’ 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도중에 위장에 채워져 있던 비닐 밀봉이 터져버렸고, 얼բ한 조선족은 급성 마약중독으로 급하게 이송을 떠나고 말았다.

주범을 찾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수사팀은 좁혀왔다. 정태가 슬금슬금 동식의 눈치를 살폈을 때 동식은 정태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총대를 메겠습니다.’

그렇게 7년을 살았다. 뭘 바라는 건 아니지만 섬뜩한 마음 떨칠 수 없었다. 그런데 행여준다고 관한 일이 건설회사 협박이라니. 던져준 먹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내키지 않았다.

정역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보호관할 기간 중이라 선불리 움직였다가는 제대로 코가 킬 수 있다.

동식은 말보리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담배를 몇 모금 빨아 당기는 동안 정태와의 옛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소년원에서 나왔을 때 갈 데 없던 동식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었던 치가 정태였다.

‘식구로 들어와라. 우리 같이 멋지게 살아보자.’

15년 전 동식은 오정태 밑에서 날아다녔다. 주먹을 휘두르려면 주먹을 내뻗었고,

몽둥이질을 하려면 몽둥이질을 했다. 사시미 칼질을 하려면 사시미 칼질을 했다.

정태의 패거리리는 고창의 20세기와 보리알 두 다른 조직을 흡수했다. 동식이 큰 역할을 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고창읍내에서 정태 패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물론 그 바람에 고창경찰서에 달려가는 날이 많았고, 정읍경찰서 대용감방에서 새 우잠을 지던 날도 많았으며, 전주교도소에서 법무부 밥을 축냈던 날도 많았다.

동식은 미간을 좁히며 중간쯤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신경질적으로 짚어 겨졌다. 마지못한 듯 조수석 의자에 던져두었던 휴대폰을 들었다.

정태와의 이런저런 일들이 머리를 들추었지만, 동식이 휴대폰을 든 것은 순전히 ‘농약’이라는 단어 때문이었다. 농약이라는 말이 웬지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이다.

소년원에서 우연히 장구와 북, 팽과리를 접했다. 가슴에서 뜨거운 뭔가가 솟구치던 시절이었다. 뭔가를 두드려 패지 않으면 속에서 울화룡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장구 같은 국악기였다. 속에서 활활치러분 분출하는 뜨거운 것들을 팽과리와 북을 쳐서 달랬다. 교도소에 있을 때도 장구와 북을 잡았다.

같은 부류의 어게들이 건달이 무슨 놈의 장구를 치냐며 힐난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동식은 청룡건설 사장에게 전화를 넣었다.

‘정태 형님이 농악 뽕시거라고 하던데, 무슨 공사요?’

‘성송면에 폐교된 학천초등학교가 있었는데 한 5년 전에 농악전수관으로 리모델링해서 농악패들이 농악을 가르치고 있거든. 그런데 그 전수관에 100여 명이 숙식할 수 있는 숙소동을 짓는다고 하는 거야.’

“100명이 들어갈 정도의 건물이면 꽤 큰 건데.”

‘공사비가 4억밖에 안 돼.’ 동식의 이마에 고름에 파였다.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사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 내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